광양시, '섬진강권 관광벨트'로 'K-관광 중심지' 도약

'광양·곡성·구례·하동' 간담회
통합벨트 구축 위한 협력 논의
'섬진강 별빛 캠핑 페스타' 채택
체류형·차별화 관광상품 개발

전라남도 광양시가 섬진강을 중심으로 생태, 문화, 휴양, 레저가 융합된 특색 있는 섬진강권 관광벨트를 조성한다. 이를 계기로 1000만 관광객이 찾는 'K-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18일 광양시에 따르면 전날 전남 유니크베뉴로 주목받고 있는 광양 원도심 인서리공원에서 광양, 곡성, 구례, 하동 등 섬진강권 4개 시군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양시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한 각 지자체장과 실무진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주요 추진 경과 및 현황 보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 '2025년 관광진흥사업', 실무협의회 워크숍 추진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4개 시군은 2025년 관광진흥사업으로 '섬진강 별빛 캠핑 페스타'를 채택했으며 섬진강스테이의 핵심 거점인 워케이션을 중심으로 캠핑장을 연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감담회에서는 한국지역개발연구원 정유준 박사의 '섬진강스테이 특화상품 육성 실행계획 수립 용역'의 중간보고도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 등 관광진흥사업의 주요 추진 내용을 공유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는 섬진강을 공유한 4개 시군의 공동 번영을 위한 중요한 성장 모멘텀"이라며 "각 시군이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를 조성해 나간다면 남해안이 남중권을 넘어 K-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광양시 원도심 인서리공원에서 광양, 곡성, 구례, 하동 등 섬진강권 4개 시군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광양시 제공

한편 광양시를 비롯한 섬진강권 4개 지자체는 지난 2021년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2년 7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간 협력 뉴딜사업에 선정되는 등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2023년 3월 제22회 광양매화축제 개막식에서는 '섬진강 관광시대 원년'을 선포하며 본격적인 통합 관광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

지난 1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와 함께 4개 지자체는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수도권 통합 광고 추진, 민간 체험시설 연계 할인제 운영, 봄꽃 축제 공동홍보 등 섬진강권 관광 시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지자체장 간담회와 실무협의회도 정기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축제·관광 사업 본격 착수
장흥축제관광재단

전라남도 장흥군이 설립한 재단법인 장흥축제관광재단이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본격적인 축제·관광 사업에 착수했다.

18일 장흥군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말 설립 등기를 완료한 후 올해 이사회를 통해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승인받고, 이달 초 사무실 이전을 마무리하며 업무 기반을 갖췄다.

이를 바탕으로 재단은 올해 지역 대표 축제인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산업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군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및 홍보, 체류형 관광 콘텐츠 발굴 등 실질적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재단은 장흥군의 축제와 관광을 전문적으로 기획·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으며, 장기적으로는 관광객 500만 시대에 대응할 전략적 콘텐츠 개발과 브랜드 마케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장흥=김전환 기자

상습침수지역 하수도 정비 완료
구례군-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남도 구례군은 장마철을 대비해 최근 5일시장과 공영버스터미널을 잇는 구례읍 봉동리 일원에서 상습침수지역 하수도시설 정비를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비활동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청장을 비롯한 직원 14명과 구례군 관계 공무원 등 총 40여명이 참여해 빗물받이 퇴적물 제거, 하수관로 청소, 시설물 점검 등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로 이뤄졌다.

특히 침수 발생이 잦았던 도로변 저지대 구간을 중심으로 하수 유입구 폐쇄 여부 및 토사 적치 상태 등을 점검하고, 기능 저하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신속한 정비를 실시했다.

구례군은 이번 정비를 시작으로 구례읍 시가지 전역에서 하수도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수도 일제정비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구례=김상현 기자

18일 오전 10시19분 여수시 신월동 제14연대 주둔지에 여순10·19사건 홍보관이 개관했다. 여수시 제공

'잊힌 역사 기억'… 여순10·19사건 홍보관 개관

18일 오전 10시19분 정식 개관
사건 발생한 신월동 14연대에

10·19 여수·순천 사건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홍보관이 개관했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9분, 여순10·19사건 홍보관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여순10·19사건 홍보관은 여순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사건 발생지인 신월동 제14연대 주둔지에 총사업비 5억8300만원을 들여 연면적 219㎡(66평) 규모로 건립됐다.

여순사건의 발생 배경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실'과 여순사건 전문가 양성 과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학습실'로 크게 구성돼 있다.

전시실에는 여순사건 전문 해설사가 상주하며, 질의응답을 통해 방문객들의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특히 홍보관은 향후 추진될 여순10·19사건 평화공원 및 평화재단 유치의 당위성을 마련하는 데도 중요한 초석이 될 전망이다.

여순10·19사건 홍보관은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상시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홍보관은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자 여순10·19사건 평화공원 유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여수시는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고흥군, 호남 유일 전국서핑대회 성료
코리아오픈 동시 진행

전라남도 고흥군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남열해돋이해수욕장에서 열린 2025 코리아오픈 & 제5회 고흥우주항공배 전국서핑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내 서핑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고흥에서 열린 전국 규모의 대회로, 호남 지역에서 유일한 서핑대회다.

특히 올해는 국가대표 선발전인 '2025 코리아오픈'과 동호인 및 청소년이 참가하는 '제5회 고흥우주항공배 전국서핑대회'가 함께 진행돼 전국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열띤 경쟁을 펼쳤다.

'2025 코리아오픈'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여자부에서 최지원(부산) 선수가 1위를 자치했으며, 송명진(부산) 선수와 남상은(강원) 선수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남자부에서는 안대석(부산) 선수가 1위를 자치했고, 김용수(강원) 선수와 이재호(강원) 선수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고흥우주항공배 전국서핑대회'에서는 롱보드 부문 여자 우승에 송혜현(경기) 선수, 남자 우승에 김태은(제주) 선수가 각각 올랐다. 숏보드 부문에서는 여자 우승 김비주(강원) 선수, 남자 우승 카노아(강원) 선수가 1위를 기록했다. 연령별 부문에서는 중등부 이하린(부산) 선수, 고등부 카노아(강원) 선수, 초급부 심강일(경기)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단체전에서는 '바보서퍼들'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대회가 열린 남열해돋이해수욕장은 청정 수질과 일정한 파도 조건을 갖춘 최적의 서핑 장소로,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 시 서핑경기장 후보지로도 선정되며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도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흥=심정우 기자

순천시 '생태거리 교량교' 개통
왕복 4차선…순천만습지 잇는다

전라남도 순천시는 지난 17일 도심과 순천만습지를 연결하는 '생태거리 교량교'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총 사업비 200억원이 투입됐으며 2022년 12월 착공 이후 약 2년 6개월의 공사 끝에 길이 165m, 왕복 4차선 규모의 신규 교량으로 거듭났다.

이번에 개통된 교량은 안정성과 내구성을 높인 1등교 교량으로, 최대 43톤급 중차량 통행이 가능한 안전 구조를 갖췄다. 또 지방하천 이사천의 유수 흐름을 고려해 기존 11개 교각을 2개로 줄인 3경간 구조로 설계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도사동 통천정미소까지 왕복 4차선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보성군, 디지털 소상공인 지원
스마트 기기 구입 비용 80%

전라남도 보성군은 18일 급변하는 외식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성군 내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영업 중인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각 사업장은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웨이팅보드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 기술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19일부터 보성군청 경제교통과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예산 한도 내 선착순 6곳을 지원한다.

보성=양종수 기자

민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개정
장흥군, 최대 100만원 지원

전라남도 장흥군은 민간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한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6월 13일 자로 공포·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경쟁 심화와 기존 자녀 돌봄 부담 등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산모들을 위해 마련됐다.

전남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산모에게 민간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회복 관련 병원비, 약품비 등이 출산가정에 지원된다.

지난해 출산한 산모 중 절반 이상이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경쟁 실패, 자녀 양육 부담,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이용이 어려워 산후조리에 불편함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흥군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산후조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장흥군에 주소를 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가 지원된다.

장흥=김전환 기자